

## 의생활 변화에 따른 의류손질의 유형

李一心·朴基濶\*

한양여자대학 섬유디자인과 강사, 부천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 The Types of Clothing Care according to Change of Clothing

Il-Sim Lee and Key-Yoon Park\*

Instructor, Dept. of Textile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Bucheon College\*

#### 目次

Abstract	IV. 시대별 의류손질의 변천과 유형
I. 서론	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의류손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생활 변화	

#### Abstract

Clothing care has been changed with the times condition of clothing to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Nowadays, it needs reasonable and saving clothing care for home economy under the IMF struc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evelopment and proper type of clothing care at the present to change of clothing in the newspaper from 1910 to 1998. The development of clothing care can be divided five steps as clothing care in home, spare clothing care, clothing care in the professional shop, re-used clothing care, economic clothing care. This study classified types of clothing care to typical purpose from these five steps.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ypes of clothing care are for long wearing, reduction of clothing expenses and domestic duties, new designed clothes from unused clothes, re-use preserving environment. The practice of reasonable and economic clothing care at the present is desirable for reference clothing care in the past.

#### I. 서론

의류손질은 소비자가 의류를 사용한 후 취급하는 과정이며 얼룩빼기, 보관, 수선, 재활용 등의

각 과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을 때 의생활 내용이 향상된다. 또한 의류손질이 영향을 미치는 가정경제와 환경보전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가정경제에서 의복손질을 포함한 소비지출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가치관 및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즉 의류손질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의생활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화해 오고 있으며, 최근 IMF 협정, 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의 경제사정 악화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의류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의류가 생활 필수품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아름다운 추구나 자기표현 등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인 생활 문화품으로서의 단순한 소비재로 의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는 의류 소지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입지 않으면서 보관만 하는 의류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sup>1)</sup>. 특히 산업화에 의한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달, 국가 경제 발전에 의한 소득의 향상, 여성의 지위 향상과 활동 영역의 확대, 대중전달 매체의 발달과 1980년대 이후 칼라 TV의 보급, 과시적 소비성향, 여가시간의 증대, 유통구조의 다양화와 현대화, 신용사회의 대두 등이 새로운 의생활 소비양식에 변화를 가져왔다<sup>2)</sup>. 이로 인하여 의류는 물리적인 수명이 아닌 외관적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고 의류를 폐기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의류의 구입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값이 싼 것을 사들이기 때문에 의류의 소지수가 증가하고 의복을 잘 정리하고 보관해서 오래도록 사용하기 보다는 손쉽게 사용하고 나서 버리는 경향으로 차차 변하므로 의류의 가치는 약화된다. 많은 양의 이용 가능한 자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폐기될 경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과 가정경제의 소비지출을 줄이는 측면에서 의류의 지혜로운 재활용 및 합리적인 의류손질이 필요하다.

의류손질과 가정경제, 환경보전과 관련된 연구로는 의류손질, 관리 현황의 실태조사나 사장되는 의류의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시대상황과 의생활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 복식의 역사, 디자인과 형태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 많으며, 가정경제와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류손질을 의생활의 변화에 따른 변천과 유형을 살펴보고 미래의 합리적이고 절약적인 의류손질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한 시대의 사회상과 소비자들의 시대상을 폭넓게 반영해주는 신문을 통하여 1910년 이후 1998년까지 의생활 변화에 따른 의류손질의 변천과 사용이 가능한 의류제품의 재활용을 살펴보고, 소비절약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경제이며 자원을 절약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으로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류손질의 유형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의류손질의 범위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모양이 나게 오래 입으려면 손질이 중요하며 사용 중 손질은 외출 후 돌아와서 간단히 먼지를 털거나 솔질을 하고 얼룩 빼기, 다림질, 건조시켜서 다시 입는다. 보관을 위한 손질은 이러한 손질 외 오래 입어서 변색된 부분을 손질하고, 습기없이 보관하거나 방충제로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의류손질에 대한 기사를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통하여 분류해 보면 대체로 착용을 위한 부분손질의 얼룩빼기와 다림질, 의류 부자재 및 부위별 손질, 보관을 위한 손질, 그에 따른 도구와 약제, 수선, 절약을 위한 폐품 활용과 재염색, 계몽과 홍보로 나눌 수 있다.

### 2. 신문기사 수집

1910년 이후 신문에 나타난 의류손질에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한다. 신문은 가장 빠르고 객관적이며 또한 폭 넓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주는 기록이므로 의류손질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정치·사회·문화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대별 의생활 변화에 따른 의류손질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문의 종류에 따라 연구의 대상 시기가 제한적이며, 또한 신문마다 각기 특성이 다르므로 3종류의 신문( 매일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을 분석한다.

1) 매일신보: 1910년 8월30일~1945년 8월15일<sup>3)</sup>

2) 동아일보: 1920년 4월1일~1940년 8월10일, 1945년 12월1일~1998년 1월20일<sup>4)</sup>

- 3) 조선일보: 1920년 3월5일~1940년 8월10일,  
1945년 11월23일~1998년1월20일<sup>5)</sup>

### 3. 내용분석

- 1)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내용을 시기별, 주제별로 구분한다.
- 2) 시기별 구분에 있어서는 1910년부터 현재까지 의류손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생활의 변화를 시대적으로 구분하고 그 시대의 특징적인 의류손질의 변천을 다음의 5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 (1) 1910~1959 : 의류궁핍시대 (가정 내 의류손질)
  - (2) 1960~1979 : 의류추진국시대 (내핍의류손질)
  - (3) 1980년대 : 기성복고급화시대 (전문점 의류손질)
  - (4) 1990년대 : 의류 대량소비시대 (재생, 재활용 의류손질)
  - (5) 1997년 이후 : IMF 체제, 피복비절약시대 (경제적인 의류손질)
- 3) 주제별 구분에 있어서는 의류손질의 변천을 살펴보고 의류손질의 유형을 분석한다.

## III. 의류손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생활 변화

### 1. 의류 궁핍시대(1910년~1959년)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 침략기에는 민족 말살정책과 식민지수탈정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876년 일본과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개항을 하게된 이후 서구 열강의 세력 다툼으로 우리 전통사회의 관습이 무너지고, 일제 침략기에는 의도적으로 전통문화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양복이 대중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백의금지 및 색의 착용 운동과 한복 개량과도 시기를 같이하여 한복 위주의 의생활에서 한복과 양복이 공존하는 의생활로 바뀌게 되었다<sup>6)</sup>. 이 시기의 의류손질은 수용단계에 있던 양복의 손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므로 양복의 얼룩빼기, 계절별 보관을 위한 손질이 많았으며 대부분 가정에서 직접 손질하였다.

1937년 이후 일본은 전시경제체제에서 부족해진 물자를 한반도에서 수탈하여 옷감이 부족하게 되자, 양복은 새로 만들지 않고 춘추복과 동복을 섞어 입거나 손질하여 오래 입고, 흰 옷은 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용도로 뜯어서 재사용 하라고 하였다.

1940년대에 여자들은 한복 외 일본이 남겨놓은 몸매와 남자들의 흰 흰색 셔츠를 입었고 남자들은 바지저고리에 오버코트나 망토를 입었다. 이러한 복식이 미군 진주와 해외 동포들의 귀국으로 크게 바뀌어 중절모와 감청색 양복, 야자수 남방 등을 입었고 멋쟁이들은 으레 새털 달린 중절모를 썼다. 그래서 모자의 손질이 필요하였다. 1950년대는 6·25 동란을 겪어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경제가 불안정하였다. 이 시기는 파괴되고 침체된 사회복구에 힘쓰던 시기였고 국민들은 기본적 생활만이 겨우 보장되었고 생활여건은 매우 궁핍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 외국으로부터 각종 구호물자가 들어와 구제품 양복을 입게 되었다. 군용담요는 외투감이고 물들인 군복은 일상복이 되었다. 이시기의 의류는 생활필수품으로 각 가정의 의류종류와 수가 많지 않은 궁핍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의류의 선택과 의류수명이 연장되는 손질이 요구되는 주로 장기적인 착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류손질이 필요하였다.

1954년 태창방적이 나일론사를 수입하여 나일론 직물을 생산하여 와이셔츠, 팬티, 양말까지 만들었다. 나일론, 비닐론 등 화학섬유가 등장하였고 새롭게 등장한 합성섬유가 의류에 많이 사용됨에 따라 합성섬유 손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화학섬유와 의류는 세탁 후 그늘에서 건조하도록 하였다. 나일론 양말을 총채로 만들어 재활용하였다. 1957년 제일모직이 모직물을 생산하였다. 수입품보다 싼 가격으로 신사복지가 나와 보통남자들이 많이 입게 되므로 양복을 손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2. 의류 추진국시대(1960~1979)

1961년 5·16 군사혁명이후 1979년까지 3·4 공화국의 장기집권으로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에서는 경제자립과 정의사

회를 구현하고 새 시대를 열고자 하였다. 군사정권은 의상 간소화 운동을 펼치고 짧은 치마 입기 운동을 벌여 세미라 불리는 적당한 치마폭이 유행하였다. 1960년대는 의복간소화와 검소한 의생활을 장려하였다. 남성들도 재건복이라고 부르는 작업복 스타일 점퍼와 콤비를 입고 다녔다. 이 시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손쉽게 물건을 맡기고 돈을 얻어 쓰는 전당포가 서민들의 살림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살림살이여서 남녀 양복과 미싱 등을 맡기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양복이나 미싱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면서 마련하기가 어렵고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털실 옷을 실용적이고 이상적인 의류로 많이 사용하였고 현 털실을 이용한 재생 편물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편물은 몇 번이든 풀어서 고쳐 뜰 수 있으므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옷이며, 현 털실도 재생하여 뜨고 남은 털실이나 새 실과 함께 끝까지 잘 활용한다. 이시기는 재건을 위한 검소한 복장이 장려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텃보다는 방한이 목적이었고 의류수명을 좌우하는 의류손질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1970년대는 옷의 춘추전국시대였다. 옷으로 후진국을 탈피하려던 시대로 다양한 옷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멋있는 양복을 내세우는 주문복업자와 싼값이라고 외치는 기성복업자와의 판매경쟁이 치열하였다. 1971년 우리나라의 기성복의 비중은 5~10%정도이고 미국은 80~90%라고 하였다. 필수적인 수납품 중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와 침구로 전 수납품의 33.1~50.1% 이었다. 그중 침구는 별 변화가 없지만 사회 문화의 발전에 따라 각종 수납품의 용적에서 의류는 10%밖에 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피복비 지출을 줄여야했고 절약을 위한 내뺌 의류손질이 요구되었다. 가계 적자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현 옷 개조와 폐품 활용, 물려받기를 생활화 하자고 하였다.

### 3. 기성복 고급화 시대(1980~1989)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로서 소득이 급상승하면서 소비패턴이 변화하였다.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의 국민소득 향

상은 소비분화를 향상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근로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였다<sup>7)</sup>. 82년 기성복의 발달로 의류제품의 호칭 및 치수 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하였다. 한국인 체형에 맞는 표준치수 규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국민 체위 조사를 하였다. 외국 브랜드의 도입, 1980년 컬러 TV의 방영과 교복자율화에 따른 캐주얼 브랜드의 급증, 서울 국제기성복박람회 개최 등은 패션분화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이에 따라 의류소재의 다양화와 고급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전문점을 통한 의류손질이 보편화되었다. 기성복 생산이 늘어난 것도 가정에서 재봉틀하는 여성을 줄게 하였고, 바느질이 현모양처가 갖추어야할 덕목의 하나로 여겨져 바느질 솜씨 좋은 여성이 대접받아 왔으나 바느질과 양재관 일부 알뜰 주부의 여가선용을 겸한 취미로 변하였다.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1966년 29.5%, 1980년 35.6%로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가에 의해 기업에서 생산된 다양한 소비재가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되고 세탁소, 수선 점, 의류보관소 등 서비스 성격의 가사노동의 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옷이 터졌다거나 단 고치기, 폭 늘리거나 고치기, 지퍼 달기 등 손볼 일이 있을 때 동네 세탁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고 가계소비지출 중 세탁소를 이용하는 비용도 꽤 커졌다. 80년대 소재의 고급화로 모피, 가죽의류 소비가 늘면서 손질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또 이시기는 낚아서 못 입는 옷보다 유행이 지나 안 입는 옷이 대부분이라 수선 점에서 디자인을 바꿔 새 멋을 내기 위하여 고쳐 입으려고 하였다. 정상진<sup>8)</sup>의 가사노동행위의 선호실태 연구에서 주부들이 싫어하는 가사노동 중 빨래 76.9%, 다림질 및 의류손질이 51.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주부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가정 내 가사노동 역할의 일부를 대체하는 의류손질의 산업화가 활발하였다.

### 4. 의류 대량소비시대(1990~1996)

합성섬유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 경제력 향상으로 의류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입는 경우가 드물어 가정마다 사장되는 의류 수량이 날로 증가하여 보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sup>9)</sup>. 21 세기를 앞

두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비자로서 의류의 사용과 폐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복의 물리적 또는 외관적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착용하지 않고 폐기하게 되는데 발생한 폐기물을 그냥 버릴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이는 곧 환경문제와 직결된다. 한 벌의 의복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 입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조화시켜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사용한다. 의류 구매 시 유행보다는 자신의 체형에 잘 맞는 옷을 구입하고 유행이 지나면 수선을 해 입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입지 않는 의류는 물려주거나 새 디자인으로 수선하여 재사용 한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바느질 기술을 익혀서 간단한 의류손질을 하여 입지 않는 의류를 재사용 한다. 입지 않는 의류를 분리수거 하여 재활용한다. 폐기되는 의류가 환경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교육하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나 자원의 재활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다. 실제로 실행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면 환경보전이나 자원의 재활용에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 5. 피복비 절약시대(1997~)

현존하는 모든 형태나 양식은 과거와 상관되어 있다. 즉 현재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새로이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이전 것의 단순한 연장이거나 부분적인 변형에 불과하다. 어떠한 행위가 거듭 반복되고 있을지라도 그에 관한 가치부여는 행위 담당자, 상황, 또는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전통이란 결국 반복이나 일치가 아니라 재생을 뜻하는 것이다. 재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외양상으로 보아서는 동일한 현상이 출현할지라도 그것을 늘 당대 사람들에 의해 새로이 선택되고 수용된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기 위해서이다<sup>10)</sup>.

IMF 이후 의생활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입을 것인가로 결정되므로 기존에 갖춘 옷을 조화롭게 입어 멋을 내는 절약형 코디네이션이 유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활용과 재생의 절약적인 의류손질은 독창적인 의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새것만이 좋다는 인식을 버리도록 사회가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유행만을 선호하고 남이 쓰던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한다면 헌옷이 잘 재활용될 수가 없다. 남의 것도 잘 쓰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고 꼭 새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여러 모임이나 바자회, 물물교환 장소를 많이 만들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할 것이다.

중고의류시장의 제품가격들은 대부분이 몇 천 원 정도로 몇 만원씩 주고 새 옷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세탁 체인점을 이용하면 세탁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세탁편의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체인점을 두고 있는데 일반 세탁소에 비해 가격이 싸므로 전국에 걸쳐 일반화되어 진다면 가정에서의 세탁비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10년부터 현재까지를 그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른 의생활의 변화와 그 시대의 특징적인 의류손질의 변천을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다음의 <표 1>에 나타내었다.

## IV. 시대별 의류손질의 변천과 유형

### 1. 장기간 착용을 위한 가정 내 의류손질

의류손질의 변천을 살펴보면 의생활 변화에 따라 각 시대별로 특징적인 의류손질을 나타내고 있다. 의류궁핍시대(1910~1959)는 의류 종류와 소지수가 많지 않으므로 의류손질을 중요시하고, 그 시대의 의류손질은 궁핍한 생활이어서 의류의 청결과 주름이 없는 외관상 말쑥함이 강조되었고 주로 장기적인 착용을 위한 목적이었다.

1938년 이후부터 물자부족으로 장기간 착용을 하기 위한 손질에 더 중점을 두었다. 양복은 새로 만들자 말고 광목조차 없으므로 옷감을 아껴쓰자, 헌 옷 버리지 말고 여러 가지로 뜯어 쓰도록 하자, 옷 끈 대신 단추를 달아 옷감을 절약하자, 전시하에 의류를 새로 장만 말고 손질을 잘하자고 계몽, 홍보하였다.

양복을 오래 입으려면 손질을 잘하고 춘추복과

〈표 1〉 의생활 변화의 시대적 구분과 의류 손질의 변천

특징	1900년대	1910~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97년 이후
사회·경제적 배경		· 일제 침략기 · 정부 수립기와 복구기 · 6.25원조구조 물자시대	· 근대화, 산업화, · 도시화 · 외국산 의류수입 금지 · 1·2차 오일 쇼크	· 컬러 TV의 등장 · 해외 브랜드의 도입 · 교복 자율화 · 의류 산업 발달 · 올림픽 개최 · 여성의 사회진출 시작 · 전국 채워 조사	· 과소비, 세계화, 시장개방 · 여성의사회진출 활발 · 쓰레기 종량제 · 환경인식과 환경운동 · 그린지록, 레이어드룩	· IMF 체제 · 절약요구시대
경제구분		경제공핍기	경제도약기	경제발전기	경제성숙기	경제절약기
의생활변화		의류공핍시대	의류추진전국시대	기성복고급화시대	의류대량소비시대	의류절약시대
의류손질의 변천		얼룩뻘개, 보관 등의 가정 내 의류손질	털실옷 재생 등의 내집 의류손질	세탁소, 수선점을 이용하는 전문점 의류손질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재생, 재활용 의류손질	피복비를 줄이는 경제적인 의류손질

동복을 섞어 입도록 하였다. 양복손질은 장기적인 착용을 위하여 의류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착용 중 부분손질’과 계절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심하므로 철이 지난 의류는 입지 못하고 보관해야 하므로 ‘보관을 위한 손질’이 필요하다. 매일 손질하면 양복이 오래 가므로 장기간 착용을 위한 의류손질은 부분손질 중 얼룩뻘개가 대부분이고 칼라를 빨거나 양복 깃의 매를 빼기도 하며 보관 간수하는 방법이 강조된다. 그 외 구멍난 곳의 안에 비단 형질을 대고 꿰매면 오래 견딜 수 있고 양복 찢어진 데를 꿰매는 등의 수선이 포함된다. 낡은 옷은 진한 색으로 재 염색하였다. 이러한 의류손질의 유형은 〈표 2〉에 있는 의류손질의 각 항목의 내용에 대부분 나타나 있다. 〈표 2〉~〈표 5〉는 신문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기사빈도 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항목들은 1건을 의미한다. 표에서 기사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연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사는 별도로 연도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1) 착용 중 부분 손질

〈표 2〉에서 얼룩뻘개가 매일신보에서 53건, 조선일보 50건, 동아일보 17건 등 총 120 건으로 많은 것은 양복을 3·4 년 세탁하지 않는 대신 손질하여 입거나 보관할 때, 세탁을 더 회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주로 얼룩종류에 따른 얼룩을 빼는 방법과 해당되는 약제에 대한 것이다.

얼룩의 종류는 잉크, 피, 과일, 포도주, 간장, 술, 우유, 커피, 홍차, 진흙, 젖, 대변, 소변, 곰팡이, 설탕, 입술연지, 먹, 페인트, 때, 모직물오점, 땀, 밥풀, 옥도정기, 분, 기름, 다리미 눌은 자리, 그을음, 녹 등의 얼룩이 있다. 얼룩뻘개에 사용된 약제는 화학약품과 자연식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림질은 바지 무릎이 나왔을 때, 칼라 다림질, 양복바지 주름 잡을 때, 의류의 구김살을 없앨 때, 양복바지를 다림 때 주로 한다. 의류부자재 및 부위별 손질은 양복 깃 손질이 많으며 단추도 안 떨어지게 달도록 한다.

### 2) 의류보관을 위한 손질

〈표 2〉에서 의류보관은 장기적인 착용을 위하

< 표 2 > 1910~1959년 일록패기, 보관 등의 가정 내 의류손질

의류손질		세부항목	1910~1959
착용중 부분 손질	일록패기 M53건 C50건 D17건	일록패기 의류	양복, 설빔, 양복깃, 비단옷, 모직물, 맥고모자, 여름옷, 흰옷, 염색물, 모시옷, 넥타이, 적삼, 목면
		일록의 종류	잉크, 피, 과일물, 간장, 술, 커피, 홍차, 진흙, 젓, 대변, 소변, 곰팡이, 섯물, 먹, 페인트, 콜타르, 산성염료, 양초, 물감, 땀, 갖의 때, 기름, 입술연지, 밥풀, 옥도정기, 분, 다리머 눌은 자리, 그을음, 인두늑
		약제 및 도구	수건, 계란, 소금, 비누, 더운물, 글리세린, 우유, 휘발유, 주석산, 무강즙, 초산, 암모니아, 붕사, 크레졸, 벤젠, 수산, 초산, 밥풀, 아교물, 설탕, 양젯물, 알콜, 전분, 아세톤, 방망이, 콜로르칼크, 소다, 구연산, 레몬, 양복브러시, 솔, 아이론, 신문지, 옥시플, 표백제
	다림질	다림질 의류	한복(2건), 양복(19건), 수건, 책상보, 와이셔츠, 무명, 비단, 털실옷, 우단, 외투(4건), 여름옷, 넥타이(2건), 인건, 모직물, 배옷
		도구	요, 담요, 불행주, 다리미(2건), 전기아이론('31)(13건), 아이론대, 식초, 분무기
	의류부자재 및 부위별 손질		양복깃(5건), 포켓(3건), 칼라, 소매
기 타		풀(4건), 외투 단추 다는 법, 먼지 티는 법(4건), 건조(2건), 바자(2건), 수에 강습화, 양복 맞춤, 인건 취급법, 솜털 떼는 법, 흰옷 구호물자(2건), 양복선택	
의류보관과 착용을 위한 손질	보관 의류	겨울양복(모직물 3건), 동복(비단옷, 솜옷, 털옷, 겨울모자 3건), 모피류, 넥타이, 파라솔, 무명, 맥고모자, 흰양복, 가죽, 가을양복, 장갑, 파나마모자, 서지, 우산, 염색물, 투피스, 손수건(2건), 털실옷, 목도리, 레인코트(2건), 우장, 중절모자, 무명옷, 외투(2건), 인건양복, 털양말, 봄양복, 인건, 교복('40), 이불, 털실, 모사, 모 페리야스, 나일론, 비닐론, 화학섬유, 속옷, 잠옷, 블라우스, 와이셔츠, 이불 호청, 양말, 내의(2건)	
	손질 방법	가정에서 부분손질(78건), 가정 드라이크리닝(11건), 물세탁(20건), 방충제(13건), 형걸, 방부제, 신문지(2건), 표백(2건), 주름이 잡히지 않게(2건), 양복짐, 세탁소(9건), 종이(2건), 건조(3건), 다림질(2건), 거품(14건)	
	손질, 보관도구, 장소	나프탈렌(2건), 이황화탄소, 장뇌(2건), 가루종약, 나무상자, 종이, 형걸, 양복걸이, 양복달개, 담배가루, 양복장(4건), 큰 트렁크, 신문지, 마른 상자, 양복 수납기('36)(3건), 휘발유, 마른 담배잎	
의류 수선	수선 의류	양복(5건), 양말(10건), 털실옷(3건), 와이셔츠(3건), 방수복(4건), 지우산, 아동외투, 맥고모자, 흰옷	
	수선 부위	구멍난 곳(4건), 헤어진 곳(11건), 찢어진곳(2건), 고무가 벗겨진 방수복(2건), 태웠을 때, 새 것으로 유지(2건)	
	수선 목적	파손수선(9건), 장기간 착용(12건), 입기 편하게, 기능 회복	

&lt;표 2&gt; 계속

의류손질		1910~1959
세부항목		
제품 활용	수선 도구	전동알, 실, 바늘, 명주실, 재봉기('36)(3건), 남은 털실
	재생 의류	와이셔츠(5건), 세무, 헌 셔츠(2건), 헌 털실(5건), 무명 헌옷, 비단 양말, 양복, 견직물, 헌옷, 구제품
	용도	양복 덮개, 기저귀 커버, 조끼, 털실 옷, 속바지, 속비선, 부인복, 아동복, 넥타이, 새로운 천, 재생편물
	재활용 의류	이불솜, 헌 넥타이(3건), 양복, 손수건, 헌 양말, 가죽 끈, 칼라, 털 냅마, 스타킹
	용도	방석, 우산집, 손가방, 구두, 방공 두건, 걸레, 집표, 쿠션, 재생모, 총채
재염색	재염색 의류	남은 모직물, 퇴색한 양산(4건), 빛 바랜 양복, 빛 바랜 실, 헌 털실
	염료 종류	산성염료, 배염료, 염기성염료, 직접염료
	염색 방법	침염(진한 색,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 날염

M: Mail Newspaper, C: Chosun Newspaper, D: Donga Newspaper

여 의류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손질과 계절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심하여 철이 지난 의류는 입지 못하고 보관해야 하므로 사용 후 부분손질, 보관을 위한 손질, 보관 후 사용할 때의 손질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겨울 양복 보관, 겨울 외투 손질, 비단옷, 솜옷, 털옷, 겨울모자 간수, 모피보관, 가죽제품, 털옷 손질, 여름옷 손질, 레인코트, 방수하는 법, 고무막인 우장 옷 보관, 봄 빨래의 풀머리는 법 등이 있다. 겨울 양복 보관을 위해서 1925년 세탁소가 있었으나 궁핍하여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지 못하므로 가정에서라도 청결하고 구김살 없는 의복을 입으려고 손질하였다.

모양 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양복손질에 따라 다르다. 양복을 많이 입어 변색 거리는 부분은 부분 손질하여 드라이 크리닝 하지 않아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세탁비를 줄였다. 그 외 양복손질은 먼지 터는 법, 솔질, 오래 입어서 변색된 부분의 손질 등이 있었다.

비단옷, 솜옷, 털옷, 겨울모자 같은 동복간수는 일광, 열목뻐기를 한 후 개어들 때 구김살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고 벌레먹지 않게 간수하였다. 모직물 보관 법은 좀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고 겨울

외투 손질은 외투 구김살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모피 보관이나, 외투 것에 대해서는 털 손질은 전문점에 맡기기도 하지만 거의 가정에서 손질하여 방충제를 넣고 보관하였다.

정리할 때는 거품, 좁 방지, 건조보관이 필요하고 정리한 것을 꺼낼 때도 거품, 건조가 필요하다.

털옷 손질과 털실 빠는 법과 보관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 외 넥타이, 목도리, 비단 손수건, 가죽장갑, 파나마 모자, 맥고 모자, 중절 모자, 파라솔, 우산, 지우산 손질이 소개되고 있다.

인건은 값이 싸더라도 오래 입지 못하면 손해인데 무명은 빨래를 자주 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본건은 더러움이 덜 타고 좀 해지더라도 흉해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 3) 수 선

수선의류는 양복, 양말, 털실옷, 와이셔츠, 방수복, 맥고모자 등이 있는데 구멍난 곳, 헤어진 곳, 찢어진 곳, 고무가 벗겨진 방수복을 수선하였다.

나일론 양말이 나오기 이전이므로 양말깎는 법에 대한 기사내용이 많으며 명주양말을 회계 오



래 신는 법과 경쟁 법을 소개하고 있다.

의류수선에서 털옷수선이 용이하므로 실용적인 옷이라고 하였다. 낡은 와이셔츠를 안전하게 수선하여 재 사용하였다.

#### 4) 재 염색

〈표 2〉에 있는 재 염색은 의류소재수가 적은 때에 오래 입기 위하여 낡거나 빛 바랜 양복을 진한 색으로 염색하는 것이었다. 비교적 값이 비싼 모직물과 털실의 염색이 많았고 그 외 명주, 인견, 무명 등을 사용한 의류제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재 염색하였다. 의류 외 양산, 구두, 가방, 모자 등을 장기적인 착용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직접 재 염색하였다. 염색법은 침염, 흘치기염, 납염, 호염 등을 주로 하였고 산성염료, 매염염료, 염기성염료, 직접염료 등의 염료를 사용하였다.

#### 2. 피복비를 줄이기 위한 내뺨 의류손질

〈표 3〉에서 의류수선이나 재생의류에 털옷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털옷은 방한용이나 스포츠웨어뿐 아니라 드레시한 외출복에도 털옷이 많이 등장하였다. 털옷은 집에서 입으면 줄거나 헤어졌을 때 언제든지 풀어서 다시 뜰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하였다. 옷감은 낡지 않았어도 작아졌거나 유행이 너무 뒤떨어져서 못 입게 된 이른 옷을 잘 이용하여 아동복을 만들고 헌옷에 수를 놓아 산뜻하게 입으면 피복비를 줄일 수 있다.

피복비를 줄이는 방법은 의류선택을 잘하고 안 입는 의류는 수선하거나 재생의류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새 옷을 사들이기보다는 장롱 속에 버려둔 헌옷을 활용하여 멋을 내본다. 옷을 직접 지어 입고 가정에서 재봉틀로 수선하고 세탁소 출입을 삼가 하여 수선료, 세탁비를 줄인다. 1970년대 두 차례 기름파동 이후 서민층의 가게는 싸듯하였다. 이 시기의 의류손질과 관련된 기사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70년-양말에서 장갑까지 생활필수품을 장만하는데 값이 비싸서 큰 부담이다. 월동준비로 목돈이 날아가는 10, 11 월엔 큰 옷장만을 피한다. 출근하는 사람의 양말은 길기고 따뜻한 것으로 내의는 보온과 흡수가 좋고 값이

싼 목면으로 준비한다. 울은 좋지만 값이 비싸고 혼방은 물건에 비해 값이 너무 비싸다. 웬만한 직장은 난방이 되니 겨울 속 내의에 과용할 것은 없다. 이밖에 주부, 어린이 의류는 집에서 만들거나 개조가 가능하다.

'72년-각종 공공요금의 올랐다. 수입은 뻔한데 공공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생필품 값도 올라 소비가 미탁이라던 구호를 버리고 각 가정은 새로운 각오와 검소 절약으로 가계 적자를 매워야겠다. 털옷은 손수 짜 입고 옷은 폐품을 이용하며 헌옷에 수를 놓아 산뜻하게 하여 입는다.

'74년-기름 파동 이후 싸듯하던 서민층의 가게는 이미 쪼들릴 대로 쪼들리면서 용케 꾸러가고 있다. 쌀 값 밀가루 값 등 주식비가 오르고 부식비도 올랐다. 피복비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약간 넘는다. 기성복을 예고는 대부분의 옷값이 거의 올랐다. 맞춤 양복은 엄두도 못 내고 헌 옷 재생 등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

'76년-절약과 저축이 필요하고 잡비 절약에 가족이 합심하여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버스만 이용한다. 물려받기로 옷값을 대폭 줄인다. 폐품 활용 전시회가 열렸다.

'79년-아직 쓸만한데도 유행이 지나서 또는 입다보니 싫증이 나서 장롱 속에 놔두는 헌 옷은 손질하기에 따라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다. 옷 수선 집들이 늘고 있고 옷 색상을 자유자재로 바꿔주는 염색제도 수입되어 시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은 오일 쇼크로 어려워진 살림에서 피복비를 줄일 수 있는 내뺨 의류손질이 요구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시기의 피복비는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0%정도이고 맞춤복에 비해 기성복은 편리하고 값이 싼 편이었고 맞춤 양복은 엄두도 못 내었다. 절약시대의 생활의 지혜로 유행이 지나서, 싫증이 나서 안 입는 헌옷을 손질해 새 옷으로 만들어 입었다. 〈표 3〉에 있는 재 염색은 〈표 2〉의 낡은 옷을 진한 색으로 재 염색하는 것과는 다르게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색상을 자유자재로 바꿔주는 염료를 사용하여 한 벌을 변화시켜 입을 수 있었다. 염료는 천의 종류에 따라 일일이 구별하여 써야 했던 재래 염료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lt;표 3&gt; 1960~1979년 털실옷 재생 등의 내입 의류손질

의류손질		세부항목	1960~1979
착용중 부분 손질	일룩빼기 C4건 D1건	일룩빼기 의류	무명, 나일론, 테도론, 캐시미론, 레이온, 가죽, 아세테이트, 혼방, 모직물. 비단, 비닐
		일룩의 종류	과즙, 아이스크림, 음식물, 홍차, 커피, 엽차, 우유, 버터, 곰팡이, 땀, 맥주, 주스, 잉크
		약제 및 도구	벤젠, 알콜, 암모니아, 수산, 초산, 표백제, 중성세제, 사염화탄소, 비로드 형겅, 피혁용 클리너, 물수건
	다림질	다림질 의류	털실 옷(2건), 테릴렌
		도구	다리미 손질, 다리미 종류(2건), 다리미 온도, 다리미 판
	의류부자재 및 부위별 손질		
기 타			칼라 풀 먹이기, 바늘 귀 땀 때, 풀 푸는 법, 단추를 땀 때, 월동 준비, 기성복과 주문복 ('71), 털 옷 손수 짜입기, 양복과 미싱으로 전당포 대출, 재봉틀 사기, 세탁소 삼가기('67), 알뜰구판장 ('79)
의류 보관과 착용을 위한 손질	보관 의류	와이셔츠(2건), 가죽제품(3건), 겨울옷(5건), 가죽장갑, 털실옷, 여름용품(3건), 침구(3건), 모피(4건), 나일론 이불, 털실, 속옷(2건), 모직물, 용단, 면제품	
	손질 방법	가정에서 부분 손질(11건), 방충제(2건), 습기 제거(6건), 거품, 일광(5건)	
	손질, 보관 도구, 장소	선풍기, 불박이장, 실리카겔, 간이 옷장, 보관 상자, 방충제(2건), 방습제, 벤졸, 트렁크, 이동 옷장, 다리미, 빨래 건조대, 중성세제, 전문점, 왁스, 우유, 플드 크립	
의류수선	수선 의류	털실 옷, 양복, 헌 옷, 아동복	
	수선 부위	해진 곳, 뚫어진 곳(4건), 실증난 옷	
	수선 목적	장기간 착용, 파손 손질(2건), 새옷으로 손질, 수놓기(2건)	
	수선 도구	귀바늘, 아후강, 대바늘, 짜집기 바늘(2건), 염색제, 수선 가계, 재봉틀(3건)	
제품 활용	재생 의류	헌 털실, 헌 와이셔츠(3건), 헌 털옷(4건), 헌 옷 (6건), 양단 치마, 자투리 천	
	용도	재생 털실, 앞치마, 재생 편물(2건), 아동복(5건), 롱스커트, 부인복(3건), 물려받기, 지래	
	재활용 의류	옷감 자투리(3건), 헌 옷(2건), 남은 털실, 스타킹, 작아진 옷, 비닐론, 헌 털실(2건), 벡타이	
	용도	방석 속, 양탄자, 냄비 집게, 인형, 벽걸이, 벽자, 여성 단체 기부, 돗자리, 깔개, 테이블보, 그릇 덮개, 쿠션, 쿠렁 장갑, 냄비 받침	
재염색	재염색 의류	실증난 옷, 군복	
	염료 종류	다목적 염료	
	염색 방법	침염, 날염	

C: Chosun Newspaper, D: Donga Newspaper

아크릴을 제외한 모든 섬유에 염색이 가능하였다. 찬물에 직접 염색이 가능한 종류도 있는데 면, 실크, 울 등의 천연섬유에 사용하였다. 전체 염색이 아닌 부분 염색의 경우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뒤 다리미로 잠시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

피복은 일종의 내구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짧은 기간의 경우에도 부가적인 피복구매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재고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불안하고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경우 피복소비자들은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에 의해 가감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출비목이다<sup>11)</sup>. Sproles<sup>12)</sup>는 의류제품소비는 소비자의 미래경제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피복비가 다른 소비지출에 비하여 소비지출에 있어서의 가감에 융통성이 있는 항목이며 사회적 경기 후퇴기에 소비자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피복비의 비중을 줄임으로서 가정경제의 수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복은 필수품인 동시에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복은 두 영역의 중간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른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소득이 기초적인 생활품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했던 경제적 미 발전기에는 각 개인이 적절한 피복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분이 피복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에 이르고 난 후에는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피복의 양을 각자의 피복재고에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량생산의 발달로 인해 보다 낮은 가격에 필요한 양의 피복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총 소비지출에서의 피복비의 비중이 떨어지게 된다<sup>13)</sup>.

### 3. 의류손질의 산업화

생활의 여유와 미의식의 증대로 의류제품의 수요증대와 다양화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의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위한 옷 수선 집과 세탁소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로 가정내의 노동력이 감소되어 의류손질의 편리성이 추구되었다. 편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내구성 높고 구김이 덜 가고 다림질이 필요없는 피복재료가 개발되어 의류손질에 필요한

가사노동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의류손질에 필요한 가사노동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에 맞추어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산업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전문적 세탁소는 물론 의류 수선업, 의류 대여업, 의류보관업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산업화되어 사회로 이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14)</sup>.

1980년대 이후 의류제품은 닳거나 헤져서 못 입기보다 유행이 지나 못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행에 맞게 수선한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헌옷을 고쳐 입는 수선점이 붐비는 이유는 80년대 초반에는 품이 넉넉하고 길이가 짧은 반코트, 바지 등 헐렁한 차림새가 인기였고 다소 낡은 듯한 풍성함이 강조되어 수선이 효과적이다. 소재의 고급화로 모피의류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유행이 지나 거의 입을 수 없게 된 모피 가죽 등 천연 소재 의류를 새것처럼 재생시켜 주는 수선점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 알뜰 분위기가 확산되고 헌 옷을 유행에 맞고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옷으로 바꾸기 위하여 수선점 이용이 잦다. 남성양복의 경우는 깃의 너비나 바지 허리 둘레를 고치는 것이 고작이므로 수선 집이나 세탁소에 맡기면 된다. 그러나 여성복의 경우는 옷 전체의 실루엣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바꾸면 의외로 새 옷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오래된 옷, 너털너털한 느낌을 주는 거지처럼 입는 그런지 패션과 여러 형태의 옷을 합쳐 입는 코디네이션이나 여러 겹으로 옷을 입는 레이어드 패션의 영향으로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집안에 있는 옛날 옷을 활용할 수 있다.

〈표 4〉의 보관의류에는 가죽옷, 모피류가 많아 가정에서의 부분 손질 외 전문점 손질이 필요하다. 모피는 잘못 다룰 경우 옷을 야에 버리게 되므로 모피전문점에 맡기는 것이 좋다. 가죽의류는 82년 이후 서구에서 대단한 유행을 불렀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 발렌티노가 양 가죽, 쇠가죽 외에 뱀가죽으로 의류를 만들어 가죽 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활동복을 널리 입게 되면서 가죽은 여성복의 소재로 자리잡게 되었고 독특한 질감을 내고 화학섬유를 제외한 어떤 소재와도 잘 어울린다. 그러나 가죽은 손질과 보관

&lt;표 4&gt; 80년대 세탁소, 수선점을 이용하는 전문점 의류손질

의류손질		세부항목	1980~1989
착용중 부분 손질	일룩빼기 C2건 D2건	일룩빼기 의류	여름옷, 장마 옷, 실크류, 카페트
		일룩의 종류	땀, 과일물, 진흙물, 푸르스름한 일룩, 기름, 껌, 때, 화학성유 녹은 때
		약제 및 도구	비누, 암모니아수, 클리너, 벤젠, 젓은 타월, 소금, 다리미
	다림질	다림질 의류	양복
		도구	국산 다리미 국제 수준
	의류부자재 및 부위별 손질		깃, 소매부리
기타		열 에너지 소비절약, 중고생 의생활관 검소, 세탁물 취급표시, 세탁소 고발	
의류 보관과 착용을 위한 손질	보관 의류	여름옷(2건), 가죽옷(8건), 니트, 모피(5건), 인조모피, 장마 옷(3건), 모직(2건), 합성섬유, 마직, 침구, 겨울옷(2건), 천연섬유, 양복, 이불, 면제품, 스웨터, 봄옷, 가죽장갑, 합성피혁코트, 털실옷, 실크, 비옷, 수영복, 고무, 비닐제품, 스웨이드, 삼베, 스타킹, 가을옷, 세무	
	손질 방법	가정에서 부분 손질(5건), 거품(5건), 물세탁(5건), 드라이 크리닝, 가죽, 모피 전문점(4건), 일광건조, 전문세탁소	
	손질, 보관 도구, 장소	방충제(4건), 고체형 왁스, 클리너, 우유, 형광 염료, 올리브 기름, 방습제(4건), 물먹는 하마('86), 멸균제, 방오, 탈취제, 표백제, 세탁소, 밀가루, 땀띠 파우더, 다림질, 식초, 모피전용 보관팩, 넓은 옷걸이	
의류수선	수선 의류	아동복, 바지단, 헌옷(2건), 양복깃, 모피코트, 재킷, 코트	
	수선 부위	단 늘임, 부분장식(3건), 옷깃, 유행지난 옷	
	수선 목적	장기간 착용, 적은 비용으로 멋내기(4건)	
	수선 도구	잊혀져 가는 재봉틀, 레이스, 자수, 테이프, 비즈, 모피 수선점, 암클립 부착, 액세서리	
제품 활용	재생 의류	헌 와이셔츠, 유행이 지나 안 입는 옷, 헌 옷	
	용도	아동복, 새 멋으로 고쳐 입기, 불우이웃배부	
	재활용 의류	헌 스타킹, 형겅조각 염색, 세탁비 대신 받은 헌옷(일본)	
	용도	카페트, 병풍, 가리개, 복지시설, 의류부족 지역으로 보냄	
재염색	재염색 의류	다른 질감의 형겅조각, 스웨터	
	염료 종류	형광염료, 다목적 염료	
	염색 방법	침염, 행글 때 형광염료 사용	

C: Chosun Newspaper, D: Donga Newspaper

이 까다로워 전문점에서 손질이 필요하다. 드라이크리닝이나 다림질 못지 않게 바지나 치마 단 고치고 옷이 터지거나 해서 손볼 일이 생길 때 가정에서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고 세탁소를 찾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 중 세탁소비도 꽤 커지고 있다. <표 3>의 60년대에는 살림이 어려울 때 미싱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대출 받을 정도로 재봉틀이 생활의 필수품이었다. 그러나 <표 4>의 80년대는 손쉬운 껌맹도 세탁소행이고 재봉틀이 있어도 장식품화 되어 젊은 여성들은 거의 사용법을 몰라 재봉틀은 잊혀져 가고 있다.

의류손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다림질은 합성섬유의 보급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재봉틀사용은 기성복이용으로 크게 변화하였다<sup>55)</sup>. 세탁은 일제침탁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세탁업은 해방 후 해외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이루어졌다. 1980년 종각 클리닝 상사의 등장으로 제레세탁소와는 다른 세탁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편의점은 세탁기계만 갖추고 소비자가 직접 세탁 및 건조시켜 입을 수 있게 하며 직장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였다.

<표 5>에 나타난 의류손질의 특징은 의류손질 보관을 위한 전문세탁업소, 의류보관업체 등이 등장하였다. 세탁소 다양화시대로 빨래, 드라이크리닝, 다림질, 수선까지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세탁공장을 차려두고 아파트촌 등에서 세탁물을 수집해 갔다가 되돌려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하 형태의 업소가 등장하였다. 자동화된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존 업소보다 싸게 맡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탁 체인점을 이용하면 세탁 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세탁 편의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체인 점을 두고 있는데 일반 세탁소에 비해 가격이 매우 싸므로 가정에서의 세탁 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독신자들이나 가정용세탁기로는 힘겨운 빨래를 들고 와 할 수 있는 빨래방, 드라이크리닝을 주로 하는 샵프크리닝, 베스트푸드 업체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세탁업소도 있다. 이 같은 업소의 등장으로 기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빨래터가 생기면 생활 풍속도 달라질 것이다.

의류의 보관은 대부분 장롱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상의 이유로 불박이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

다.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주택의 사정은 피복류의 보관을 위한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장롱의 면적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보관을 위하여 세탁소나 전문보관업소의 활용이 필요하다.

철지난 의류제품을 전문적으로 맡아 관리해주는 의류보관업이 등장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소형아파트 생활자이다. 모피와 같이 값비싼 의류는 잘못 보관하면 품질이 훼손되기 쉽다. 모피제품은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가죽이 경화되고 털이 변색되는 피해를 보기 쉬워 이용자가 늘고 있다.

1990년을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총 물가지수로나눈 상대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품목은 재봉료, 세탁료, 수선료 등을 포함한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서비스 품목이다<sup>56)</sup>. 이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량생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피복의 제조 생산원가는 감소하였던 것에 비하여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품목별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세탁료에 대한 소비지출의 급격한 상승이 눈에 띈다. 이는 합성섬유가 많이 사용되고 모피, 가죽, 등드라이크리닝이 필요한 고급의복의 착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재봉료의 소비지출은 약간의 상승을 보이다가 89년 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수선료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던 피복에 대한 수선이 가정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92년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의류업체들이 고객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쟁에 나섰다. 고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고객의류수선센터에서 수선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주부에게 의존하는 의류손질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가정내의 손질이 부분적으로 산업화하고 의류손질의 산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 4. 새 멋 내기의 디자인을 변형한 의류손질

비싼 옷을 큰맘먹고 사더라도 싫증이 나 몇 번 입지 않고 옷장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의류 수선 점을 이용하여 쌓아두었던 옷들을 멋지게 바꿀 수 있다.

&lt;표 5&gt; 90년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생, 재활용 의류손질

의류손질		세부항목		1990~1998
착용중 부분 손질	얼룩빼기 C3건 D2건	얼룩빼기 의류	가죽, 흰 바지	
		얼룩의 종류	풀물, 축농, 참기름(2건), 커피, 홍차, 우유, 아이스크림, 맥주, 과일즙, 감자국물, 파운데이션, 페인트, 다리미질	
		약제 및 도구	과산화수소, 콜드크림, 알콜, 다리미, 종이, 형광, 휘발유, 벤젠, 물수건, 탄산수, 식초, 암모니아액, 올리브 기름, 양파즙, 가성소다, 가루비누	
	다림질	다림질 의류	견직물, 화학섬유, 면직, 모직류, 손수건, 원형기억셔츠, 무릎나온 바지	
		도구	에너지 절약 다림질, 노다림('94), 젖은 타월, 다리미, 다림판, 다리미 관리, 불량품 가정용 다리미, 전기다리미 종류(2건), 백제식 다리미 발굽, 다림판 필요없는 다리미('92)	
	의류부자재 및 부위별 손질	바짓단 접힌 자국		
	기타	폴로 T 가짜 구입(단추, 촉감, 라벨 비교), 두꺼운 천 박음질에 양초 사용, IMF 시대의 의류수선점(2건), 맛이 변한 식초를 섬유유연제로 사용, 옷 표시사항, 세탁소 다양화 시대('92), 의류업계 서비스 경쟁, 한산한 솜들짐, 옷 제조시기 표시 의무화('94), T셔츠 세탁후 불량 교환요구 목살, 가짜상표, 할인매장 아동복 품질 엉망('97), 옷 치수 줄이기, 세탁물 인수증 챙기기, 의류정보 전시회, 교환 친절 봉사, 수납요령, 도용상표권		
의류 보관과 착용을 위한 손질	보관 의류	무스탕, 토스카나(4건), 새미가죽 코트(2건), 가죽제품(2건), 겨울옷, 오리털파카, 양복(2건), 견직물, 울소재옷, 마, 양모 스웨터, 실크스카프, 넥타이		
	손질 방법	가정에서 부분 손질(4건), 통풍(7건), 일광 건조, 드라이크리닝(2건), 물세탁, 가정에서 벤젠으로 드라이크리닝		
	손질, 보관 도구, 장소	360°회전옷장(3건), 중성세제, 분무기, 옷솔, 면수건, 전문가족세탁업소, 옷 보관소, 진공 청소기(2건), 바나나 껍질, 콜드크림, 암모니아, 서랍장, 선풍기(2건), 실리카겔(2건), 나프탈 린, 불박이장, 방충제, 습기제거제(2건), 의류 보관업체		
의류수선	수선 의류	원피스, 신사복, 양복, 캐주얼복, 가죽(2건), 무스탕, 수영복, 와이셔츠, 유행지난 옷(3건), 낡은옷(3건), 모피		
	수선 부위	칼 닳는 부분(깃, 소매), 허리나 어깨선, 파손, 털이 빠지거나 염색이 묻어나는 제품, 실루엣(2건), 장식달기, 남성용 재킷의 칼라와 깃(라펠), 장식그리기, 디자인, 소매통		
	수선 목적	최신 유행 디자인, 무료 서비스, 의류수선 서비스 강화, 새옷과 같은 분위기(2건), 그린자룩('93), 리폼, 모피리폼, 코디네이션		

&lt;표 5&gt; 계속

의류손질		세부항목	1990~1998
제품 활용	수선 도구	리페어집, 기성복 와이셔츠 업체, 수선집, 세탁소, 재봉틀, 모피수선전문점	
	재생 의류	현 넥타이, 평상복, 현 옷, 현 한복, 이불천,	
	용도	블라우스, 치마, 어린이 바지, 파티복, 최신 모드와 개성을 살리는 옷, 원피스	
	재활용 의류	현 옷 (3건), 이불 등 낡은 옷감, 옷걸이, 단추, 면장갑, 천천, 가죽 조각 모으기, 안입는 새 옷, 현 옷 판매 (2건), 재활용 패션('94 일본, 미국), 한복, 넥타이, 스타킹, 안입는옷, 교복	
	용도	레저가방, 배개 등으로 쓸 수 있는 장바구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절약, 길레,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함, 수익금 이웃돕기, 무료제공, 페트병스웨터, 카세트 테이프 양말, 컵받침, 보자기, 창문가리개, 바이어스, 수도동파예방, 고아원에서 활용, 옷은행, 교복 물려주기('97)	
염 색	염색폐수 처리공정 개발, 패션페인팅 (유성아크릴물감)		

C: Chosun Newspaper, D: Donga Newspaper

의류 구매시 유행보다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류를 구입하고 유행이 지나면 수선을 해 입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지 않는 의류는 새 디자인으로 수선하여 재 사용한다. 새 디자인으로 수선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여 다시 새로운 것을 재 창조해 내는 재생의 개념을 갖는 재활용 의류와 새 멋 내기의 의류로 나눌 수 있다. <표 5>의 재활용의류는 집안의 현옷이나 이불 등 낡은 옷감을 이용해 가방,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으며 재생의류는 주로 현 의류제품을 이용하여 최신 유행에 맞는 개성을 살리는 새 멋 내기 옷을 만들 수 있다. 또 평상복에 의류부자재 도매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조 털이나 공단 리본, 망사, 비클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색다른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 현옷을 수선할 때 묵직한 느낌의 옷은 칼라를 떼어낸 뒤 웨이트 라인을 강조하고 유행에 맞춰 길이를 줄여 미니로 변모시키면 단순한 라인의 육감적 원피스로 바뀐다. 망사 소재를 큼직하게 잘라내 만든 소매 없는 원피스 위에 남성 재킷의 어깨 팔 부분을 떼 낸 조끼 같은 걸음을 걸쳐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재생의류는 90년대 그런지 룩과 레이어드 룩에 알맞은 옷으로 일반화되어 쉽게 수용될 수 있다. 패션 페인팅은 미국의 한 염료회사가 개발한 유성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싫증난 옷을 장식하여 새롭게 보이게 한다.

가정마다 입지 않는 청바지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바지는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디자인을 변형시켜 새 옷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만들 수도 있다.

#####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생, 재활용

김병미<sup>17)</sup>의 연구에서 의류 재활용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현 의류의 교환이나 증여에 대한 행동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입는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입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활용하겠다는 비율은 낮았으며 아직 주부들이 환경, 자원절약, 재활용 등에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옷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중고 의류시장이 아직 활

성화되지 못하고 현물을 판매하는 중고의류회사가 거의 없으며 물물교환이나 알뜰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가 적은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벼룩시장은 기능적인 중고시장, 퇴화한 고봉시장으로 특징지어지며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다. 영국의 학교에서는 점불 세일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던 물품들을 싼값으로 내놓아서로 사고 파는 교내의 한 행사이다<sup>19)</sup>.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도 각자 사용하던 물품의 종류를 교내지나 포스터를 이용하여 홍보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에서도 교복이나 체육복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활성화 되려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생활용품의 교환은 가정집의 차고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지 세일(garage sale)과 이사 전에 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이사세일이 있다. 또한 전문상점을 통해 중고생활용품을 위탁판매점에 맡겨 팔리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기도 한다. 가정이나 전문상점 외에 교회, 학교 등의 공공단체나 사설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현실에 맞는 의류 재활용 방안을 적용시키면 환경오염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재생의 개념을 갖는 재활용복식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어 자연을 고갈시키기보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여 다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해 내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시킬 수 있다<sup>20)</sup>.

〈표 5〉에서 일본의 94년 재활용패션을 살펴보면 페트병으로 만든 스웨터, 카세트 테이프로 만든 양말, 조각천이나 남은 실을 이용해 만든 셔츠 등 단순히 현물을 고쳐서 입는 단계를 한 단계 넘어 자원을 재활용, 재생산하는 재활용패션이 급속 확산되었다. 재활용 패션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호응도가 높은 것은 유행하는 그런지 패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또 재생섬유라는데 매력을 느껴 옷을 사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 나라는 소비자들이 의류손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고 사장되는 의류파악을 제대로 하

지 못하므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 사장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 의류를 잘 활용한다면 자원절약,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을 자원화 한다는 경제적 효과도 갖게 된다. 따라서 구매, 사용, 손질과 더불어 합리적인 폐기와 재활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류손질 전과정에 대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류의 재활용을 통해서 가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수거된 의류가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바다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물물교환시장이나 알뜰 바자회를 활성화시켜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급선무인 것으로 고려되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나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중고의류시장을 상설화 하여 소비자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1)</sup>.

YMCA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구 당 의류 신발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매월 평균 11만 1천 5백원정도라고 한다. 매달 이 정도의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며 이럴 때 중고의류 등을 활용한다면 가계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아동복이나 유아복의 경우 낚아서 못 입는 경우보다는 작아서 못 입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중고의류시장 제품의 구입은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주부들이 집에서 쓰던 물건에 5백원 짜리 가격표도 붙여서 파는 절약정신은 본받을 만하다. IMF를 계기로 중산층이 소비절약운동에 나서야 한다.

입지 않는 의복의 재사용 방안을 모색한다. 재사용이란 입지 않는 의복을 물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류 폐기 이유는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실용성이 저하되거나 체형에 맞지 않을 때 기호가 변화되었을 때 낡았을 때 등이다. 입지 않는 의복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남에게 물려주거나 가족사이에서 물려주는 방법이 있다. 남에게 의류를 물려주는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보편적이지 못한 편이지만 가족사이에서는 보편적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대적인 홍보와 의식개혁운동을 통하여 입지 않는 의복을



남에게 기증하거나 헌 의류 판매상에게 판매하여 의복의 재사용 범위를 넓혀 나가야겠다. 의복을 기증하였을 때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서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류를 수선할 수 있는 바느질 기술을 보급하여 소비자들이 바느질 기술을 익혀서 의류손질을 스스로 하여 입지 않는 의복을 재 사용하여야 한다. 수선 집을 이용하면 유행에 뒤떨어진 옷도 새 것처럼 고쳐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생, 재활용의류는 색다른 감각을 보여주며 개인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간단한 의류손질을 습득해서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 V. 결 론

의류손질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의생활의 시대상황에 따라 항상 변화해 오고 있으며, 최근 IMF 한파 이후 가정경제를 돕고 절약울 강조하는 합리적인 의류손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을 통하여 1910년 이후 1998년까지 의생활 변화에 따른 의복손질의 변천을 살펴보고, 소비절약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류손질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각 시대의 특징적인 의류손질의 변천은 얼룩빼기, 보관 등의 가정 내 의류손질, 털실 옷 재생 등의 내뺨의류손질, 세탁소, 수선점을 이용하는 전문점 의류손질,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재생, 재활용 의류손질, 피복비를 줄이는 경제적인 의류손질의 5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5단계의 의류손질의 변천에서 강조되는 의류손질의 목적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10년에서 1959년까지는 의류 종류와 소자 수가 많지 않으므로 의류손질을 중요시하고, 그 시대의 의류손질은 궁핍한 생활이어도 의류의 청결과 주름이 없는 외관상 말쑥함이 강조된 장기적인 착용을 위한 의류손질이었다.
2. 1960년에서 1979년까지는 의류수선이나 재

생의류에 털옷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방한용이나 스포츠웨어뿐 아니라 드레시한 의복에도 털옷이 많이 등장하였고 털옷은 집에서 며 입으면 즐거나 헤어졌을 때 언제든지 풀어서 다시 들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하였다. 안 입는 의류는 수선하거나 재생의류를 잘 활용하는 피복비를 줄이기 위한 의류손질을 하였다.

3. 1980년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로 가정내의 노동력이 감소되어 의류손질의 편리성이 추구되었다. 의류손질에 필요한 가사노동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에 맞추어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산업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전문적 세탁소는 물론 의류 수선업, 의류 대여업, 의류보관업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의류손질이 산업화되어 사회로 이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1990년대의 재생의류는 주로 헌 의류제품을 이용하여 최신 유행에 맞는 개성을 살리는 새 멋 내기의 디자인을 변형한 옷을 만들 수 있다. 의류 구매시 유행보다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류를 구입하고 유행이 지나면 수선을 해 입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지 않는 의류는 새 디자인으로 수선하여 재 사용한다.

5. 우리 나라는 소비자들이 의류손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고 사장되는 의류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장되는 의류를 잘 활용한다면 자원절약,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을 자원화 한다는 경제적 효과도 갖게 된다. 따라서 구매, 사용, 손질과 더불어 합리적인 폐기와 재활용이 필요하다. 재생, 재활용의류는 색다른 감각을 보여주며 개인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간단한 의류손질을 습득해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생,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1997년 이후 의생활은 절약형 코디네이션이 유행할 것이므로 재활용과 재생의 절약적인 의류손질이 요구된다. 환경보전

에도 기여하고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피복비를 줄이는 경제적인 의류손질을 하려면, 전 시대의 의류손질의 유형을 참조하여 현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간 착용을 위한 의류를 선택하고 현 옷은 새 멋 내기의 디자인으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중고 의류의 교환이 활성화되어 의류의 재사용이 확대되면 개인의 개성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실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유연실, 성인여성의 의복폐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996.
- 2) 이미경,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4.
- 3) 매일신보 : 1910년 8월 30일~1945년 8월 15일
- 4) 동아일보 : 1920년 4월 1일~1940년 8월 10일, 1945년 12월 1일~1998년 1월 20일
- 5) 조선일보 : 1920년 3월 5일~1940년 8월 10일, 1945년 11월 23일~1998년 1월 20일
- 6) 박길순, 한국현대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7) 임숙자 외 8인, 한국 생활문화100년(1894~1994), 도서출판 장원, pp.121-164, 1995.
- 8) 정상진, 가사노동에 의한 주부의 소진상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9) 田中光二, 家庭における衣料の不用在庫, 日本關西衣生活研究, 10(2), 1983.
- 10) 임희섭,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출판, p.49-58, 1995.
- 11) 정수진,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변화양상과 그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2) Sproles, G. B.,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9.
- 13) 배미경, 박광희, 도시가계의 피복비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997.
- 14) 이은영, 광복후 50년간 의생활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5.
- 15) 김성희,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16)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통계연감, 1997.
- 17) 김병미,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1997.
- 18) 이춘희, 소비자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복관리행동과 의류자원 재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5.
- 19) 박근수, 재활용을 통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0) 강성진, 재활용품 회수 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